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전 혜 경*

초 록

본 연구는 애착이론을 토대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인정욕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 대학생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서 설정한 매개효과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성인애착에 이르는 경로에서 인정욕구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를 통해 자녀의 애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정욕구가 두 변인을 매개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애착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매개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이 자료에 보다 적합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인정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대학생 자녀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인정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정욕구가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 인정욕구가 애착회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인정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애착회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성인애착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정욕구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의 실제적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 하였다.

주제어: 심리적 통제, 성인애착, 인정욕구

*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lsch4219@naver.com

I. 서 론

대학생 시기는 발달과정 상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이며 중·고등학교의 공교육 속에서 잘 계획된 교과수업과 대학진학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행보를 준비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은 학업, 진로,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 등 생활 전반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대학생들의 애착,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애착 대상이 주양육자인 부모님 이외의 또래나 이성에게로 범위가 확대되어(박은희, 2014)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이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인들과의 친밀하고 효과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윤희경, 윤희식, 2013), 나아가 이 과정에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성인애착, 의사소통 등이 있다(안하얀, 서영석, 2010; 유고은, 방희정, 2011). 이중 성인애착은 대인관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대처 기술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Bowlby, 1982). 이렇게 성인애착은 관계문제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관계문제를 개선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인애착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정희, 2005).

성인애착은 친밀한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로서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 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이다(Ainsworth, 1991). 또한 성인애착은 거부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차원인 애착불안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의존에 대한 불편함 차원인 애착회피라는 독립적인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안하얀, 서영석, 2010).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의 경우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경향성이 있다.

타인의 평가라 할 수 있는 인정욕구는 전형적으로 심리적 부담이 되는 요소로 여겨진다(김영란, 2014). 높은 인정욕구는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방향이 아닌 타인들이 ‘잘 한다’고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여 살아가도록 하고, 의존적 관계패턴을 발생시킨다(이정숙, 2010). 한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사랑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며, 대학생 자녀 스스로가 불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자존감의 문제

를 유발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Barber & Harmon, 2002).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세 변인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인정욕구는 상호 관련성이 높으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살펴본 대로 대학생들이 성인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지 못했을 때는 대학생활에서 적응상의 문제와 더불어 심리적인 어려움의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대학생들이 발달단계에서 경험해야 되는 과제를 직면할 때 스스로 해결 해 나갈 수 없게 만들며, 이로 인해 과제에 관한 경험을 박탈당하게 되고(박계란, 이지민, 2012), 과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차단되어, 결국 대학생들은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접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인 심리적인 통제를 대학생들의 성인애착과 관련된 심리적인 어려움의 요인으로 규정하고 그 경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이론과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제가 인정욕구,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실제적인 연구들과 이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많이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점수가 높을수록 인정욕구가 높아질 것이다. 셋째, 인정욕구가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을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대한 관계는 인정욕구에 의하여 매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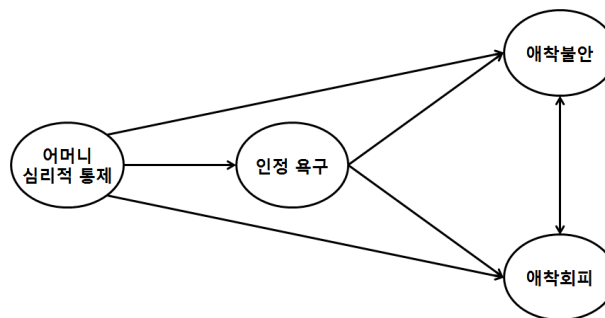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애착은 양육자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와 결속을 의미하며, 심리적 적응과 정서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자녀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 및 환경에 대한 인지도식인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게 되고, 이는 성격형성의 기본요소로서 관계양식 및 정서조절전략 등에 영향을 준다(Bowlby, 1969). 이러한 애착은 생애 초기 주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이며, 이후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도식이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안정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정한 애착패턴을 지니게 된다(Bowlby, 1969; Mallinckrodt, 2000).

그러나 생애초기에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적 작동모델이 중요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조정되고 재구조화되며, 보다 정교해지는 능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Bowlby, 1988; 방희정, 2009).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애착의 대상이 주양육자인 부모가 아닌 친구나 가까운 지인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생애초기의 내적 작동모델이 그대로 유지되기 보다는 각자의 대인관계 경험들이 반영되어 재구조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박은희, 2014). 따라서 대학생들의 성인애착을 살펴볼 때는 아동기의 부모와의 애착보다 성인애착이 관계와 관련된 심리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윤희경, 윤형식, 2013).

실제 연구들에서도 현재의 정신건강에 있어 아동기 애착경험보다는 성인애착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성인애착유형은 다양한 특성들에서 개인차를 일으킨다. 즉, 어린 시절 부모와 애착경험에서 안정적인 성인들은 안정적이지 않은 성인들보다 부모와의 관계를 보다 애정적으로 지각하는 반면(Feeney & Noller, 1990),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가진 성인들이 모두 자신의 부모를 따뜻하다고 기억하지는 않는다(Main, Kaplan & Cassidy, 1985; Waldinger, Seidman, Gerber, Liem, Allen & Hauser, 2003).

성인애착은 불안과 회피라는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되며(이현덕, 홍혜영, 2011), 각각 다른 대처 양식 및 정서조절 전략을 갖는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우선 애착 불안은 타인에 의해 버려질 거 같은 느낌으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깊이를 의미한다. 애착 불안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부적절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심각하게 반응적인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한다. 반면 애착 회피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만 믿게 되는 자기 의존감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의미한다. 애착 회피가 강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과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감정이 억제되는 비활성화 전략을 사용한다(김진숙, 2013; 하진의, 2013). 성인애착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으면 성인애착을 구분하여 성인애착의 정서조절 및 대처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성인애착을 불안, 회피 두 차원(하유미, 2012)으로 구분하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불안정애착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심리적 통제란 부모가 자녀의 생각, 감정, 자기표현, 애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정하려는 훈육행동을 말한다(Barber, 1996; 신희수, 안명희, 2013).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정서적 통제는 자녀에게 심각하게 죄의식을 심어주는 등의 바르지 못한 훈육 태도로 나타나며 부모의 민감성을 저해하는 요인이자 자녀의 부적응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arber & Harmon, 2002; 이현주, 안명희, 2012). 자녀의 감정을 인정해주지 않고 사소한 것에도 부모의 사랑을 담보로 협박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는 식의 양육패턴으로 이어져 분리불안(Hock, Eberly, Bartle-Haring, Ellwanger & Widaman, 2001), 낮은 자아개념(이은경, 1995), 독립성과 개별적인 정체성(최수경, 1997)에 영향을 주게 된다.

지금까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한 연구들(마은애, 손은정, 2014; 신희수, 안명희, 2013)은 특히 자녀의 자아개념, 두려움이나 우울, 불안과 같은 개인내적인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요구와 상관없이 가해지는 사회화의 압력(Maccoby & Martin, 1983)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내적인 속성들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같은 개인외적인 속성들까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개인내적인 변인을 넘어 개인 내·외적인 것의 중간이라 할 수 있는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정신건강의

필수요건으로 대인관계 속성 같은 성인애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살펴본 대로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는 심리적인 통제는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욕구와 무관하게 행해지는 사회화의 압력(Maccoby & Martin, 1983)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자녀의 자아정체감(Conger, Conger & Scaramella, 1997)형성에 저해 요인이 되거나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Baumrind, 1965).

이렇게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제는 자녀의 의존성을 높이고 자율성 발달을 제지하여 성인기의 안정애착형성을 위한 탐색을 방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정서적 자율성을 좌절시켜 애착 경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다시 자녀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 인정욕구와 성인애착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확장된 사회적 관계에서 원만한 관계형성과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러한 관계가 효율적이고 원만하며 만족스러울 때는 행복감을 느끼지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상황에 처해지면 부적응과 좌절로 살아갈 수 있다(김남연, 양난미, 2012). 특히 중요한 타인인 친구나 연인, 선 후배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신경을 지나치게 쓰는 경우에는 오히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Cassidy & Berlin, 1994) 개인 내적인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Barber & Harmon, 2002). 이는 대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애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수용하여 받아들여지는지에 관심을 갖게 한다.

인정욕구(need for approval)는 ‘한 인간이 영향력 있는 타인들로부터 승인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며,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김지형, 박경자, 2010). 이러한 인정욕구는 타인에게 버려지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외면하기 위해 사회적인 관계영역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 대인관계에서 부인, 억압과 같은 갈등을 회피하는 방어기제와 관련되어 있다. 인정욕구가 심한 개인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타인의 긍정적 반응에 지나치게 의식하며 맞춰가는 태도로 볼 수 있다(Crowne, 1979; 김민정, 이동귀, 2008; 박주연, 2014).

선행연구에서 인정욕구가 높은 사람은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거나(신희수, 안명희, 2013), 주변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 우울을 더 많이 겪는 경향이 있다(Whittal & Dobson, 1991). 또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은 타인의 인정을 얻는데 에너지를 더 쓰고 자신의 내적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김지윤, 이동귀, 2013) 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보인다.

청소년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중의 하나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성인애착은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며 관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애착관계의 탐색이 필요하다(윤희경, 윤희식, 2013).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관계문제와 같은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주어, 자기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송은주, 이지연, 이채희, 2012). 특히 대학생들은 사회적 관계의 확장으로 같은 또래나 이성과의 관계 형성에 몰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계형성은 인정욕구추구에 반영되어 성인애착과 관련이 있으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타인의 말과 행동을 과도하게 경계하며 타인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Cassidy & Berlin, 1994).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신희수, 안명희, 2013) 중요한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결점 없이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인정욕구는 타인의 평가와 관련이 있어 때로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능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심각성에 따라 개인의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인정욕구는 낮은 자존감(Rudolph & Conley, 2005), 사회적 불안이나 회피와 관련성이 높아(배예슬, 2014) 정신병리와 연관성이 보고된다. 여기에 성인애착과도 관련성이 높아 애착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인정욕구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김민선, 2007).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애착과 인정욕구의 관련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정욕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구체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애착과 관련하여 인정욕구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성인애착

국내의 대학생들은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김유림, 2011) 어머니에 의한 대학생 자녀의 심리통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후기에서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자율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지속적인 관여와 통제는 대학생에게 깊은 불편감과 반발심을 심어줄 수 있다. 어머니의 만성적인 심리통제는 대학생의 심리적 영역의 자율성을 방해하여 어머니와 건강한 심리적 분리를 이루기 어렵고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신희수, 안명희, 2013).

또 다른 문제로 어머니의 관여가 깊은 경우 자녀들은 부적절한 자기상을 형성하게 되고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인정과 긍정적인 수용을 갈구하게 된다. 때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사랑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며, 자녀가 무력감과 함께 스스로 불완전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존감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Barber & Harmon, 2002). 이런 경우 자녀들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인정욕구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인정욕구에서 추구하는 연구주제로 불안, 자기수용, 삶의 만족, 공격성, 완벽주의와 애착 등 다양한 심리 내·외적, 대인관계 변인과 관련되어 있다. 대상관계이론에서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로 생애 초기 주변인과의 관계, 특히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영향을 받게 된다(Greenberg & Mitchell, 1983). 이는 타인의 인정이 자아존중감의 주요 원천이 되어 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고 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못하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주변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게 된다(Crowne & Marlowe, 1964).

인정욕구는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자신의 바람대로 타인의 인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기 쉽다. 이러한 인정욕구의 연구는 인정욕구가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수의 역할(Wu & Wei, 2008)을 하고, 심리통제를 많이 받았다고 지각할수록 완벽주의가 높아지며 높은 완벽주의는 다시 인정

육구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신희수, 2012).

애착관계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안정적이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타인을 신뢰할 수 없고, 자신감이 없으며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장휘숙, 1997). 여기서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자 중요한 타인이며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어머니의 독재적인 양육방식이라 할 수 있는 심리적인 통제가 인정육구와 상당 부분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III.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81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 실시에 앞서 연구자가 직접 참여 동의를 구하였고 강의시간에 이루어져 실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한 277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24명(44.8%), 여자가 153명(55.2%)으로 여자가 다소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163명(58.8%), 2학년이 90명(32.5%), 3학년이 24명(8.7%)로 1학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성인애착 척도

성인애착 척도는 개정판 친밀관계경험검사(ECR-Revised: ECR-R)척도로 김성현(2004)이 번안한 것을 활용하였다. 이 ECR-R척도는 친밀관계경험검사(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Questionnaire: ECR)(Brennan et al., 1998)를 Fraley, Waller and

Brennan(2000)이 문항반응이론을 개정한 것이다.

ECR-R은 성인을 대상으로 내·외적 2개의 독립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불안차원은 관계에서 버림받거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애착회피차원은 친밀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꺼리거나 불편한 정도를 나타낸다. ECR-R척도는 모두 36문항으로 애착불안 18문항, 애착회피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차원의 두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애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은 대학생 390명을 대상으로 번역과정을 거쳐 동등성을 파악하고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타당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애착의 불안차원은 .89, 애착회피가 .85로 보고되었고, 안하얀과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는 각각 .89와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성인애착의 내적 합치도는 .92였으며, 애착의 불안차원과 애착회피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92, .91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척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Barben(1996)의 청소년용 부모 심리통제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Y-YSR) 16문항에 Olsen et al.(2002)의 2문항을 추가하여 안명희(2010)가 번안하고 완성한 청소년 부모 심리적 통제 척도를 신희수(2012)가 대학생에 맞게 어휘를 수정하여 측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언어 표현제재-감정무시,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애정철회-죄의식 심어주기의 3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하위요인은 6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의 5점 척도이며 각 하위변수의 문항 점수를 합한 값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안명희(201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용 부모 심리적 통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가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1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언어표현제재-감정무시 .79,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84, 애정철회-죄의식 심어주기 .74로 나타났다.

3) 인정욕구 척도

인정욕구는 Martin-Larsen Approval Motivation scale (MLAM)을 Martin이 1984년에 개정하고 이를 이정숙(2010)이 번안한 인정욕구를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참가자의 모습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수용받기 위해서라면 실제 모습을 숨기고서라도 상대방에 맞추는 경향을 평가한다. 이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는 무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실제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맞추려는 것이다. 모든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 수용 받고 싶어 하고, 거부나 비판에 대해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는 것이다. Likert-type 5점 척도로 구성된 본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 중 역채점 문항은 2, 12, 13, 16, 19번이다. Wu와 Wei(2008)연구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가 .82였으며, 신희수(2012)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79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 일치도는 .78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우선 주요 변인인 어머니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애착의 경우 애착불안, 애착회피로 구분해서 각각의 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하위요인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를 각각 따로 종속변인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심리적 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인들을 문항묶음(item parceling) 방법 중 문항-구성개념간 균형(item-to-construct balance)을 이용한 기법(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으로 각각 3개의 측정변인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문항-구성개념간 균형을 이용한 문항묶음 방법은 단일 요인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을 기준으로 2-3개의 문항묶음으로 문항들을 균형 할당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부하량이 큰 문항과 작은 문항들을 차례로 묶어서 최종적으로 각각 3개의 문항묶음을 새로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SPSS 21.0을 이용하여 주요변인들과 문항묶음 방법을 통해 생성한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계산하여 자료의 정상분포 가정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AMOS 21.0을 이용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주요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때, 모수치 추정방식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고,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 Anderson & Gerbing, 1988)에 의해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을 검증할 때, 자료에 잘 맞는 최적의 모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간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로 CFI, TLI, RMSEA 값을 활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TLI와 CFI는 .95 이상, SRMR 값은 .08, RMSEA 값은 .06 이하면 좋은 모형, .08 이하면 적절한(reasonable) 모형, .10을 넘으면 좋지 않은 모형(Hu & Bentler, 1999)으로 간주하였다. 더불어 인정욕구의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모수 추정 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변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Bollen, 1989),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구하기 위하여 어머니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전체 점수 및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리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변인들의 전체 점수들간 상관 및 기술통계치를 표 1에, 측정변인들간 상관 및 기술통계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 ($N = 277$)

변인	어머니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애착불안	애착회피
어머니 심리적 통제	1			
인정욕구	.34***	1		
애착불안	.34***	.57***	1	
애착 회피	.09	.14*	.26***	1

변인	어머니 심리적 통제	인정욕구	애착불안	애착회피
평균	2.21	3.08	2.58	2.68
표준편차	.72	.42	.65	.59
왜도	.66	.22	.05	.35
첨도	.14	.60	-.66	.27

* $p < .05$, *** $p < .001$.

표 2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 ($N = 277$)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언어표현재제 -감정무시	1											
2. 인산공격변덕 스러운 감정	.75***	1										
3. 애정철회-죄의식 심어주기	.68***	.77***	1									
4. 인정욕구1	.29***	.24***	.24***	1								
5. 인정욕구2	.25***	.25***	.23***	.46***	1							
6. 인정욕구3	.23***	.32***	.26***	.61***	.51***	1						
7. 애착불안1	.30***	.33***	.29***	.41***	.40***	.42***	1					
8. 애착불안2	.27***	.29***	.24***	.46***	.41***	.48***	.80***	1				
9. 애착불안3	.29***	.33***	.27***	.49***	.41***	.47***	.83***	.82***	1			
10. 애착회피1	.01	.05	.06	.03	.10	.10	.16**	.22***	.25***	1		
11. 애착회피2	.02	.09	.06	.02	.05	.10	.14*	.23***	.25***	.79***	1	
12. 애착회피3	.10	.14*	.12*	.14*	.23***	.15*	.23***	.24***	.27***	.73***	.66***	1
평균	2.35	2.15	2.12	3.00	2.97	3.21	2.47	2.59	2.67	2.88	2.63	2.52
표준편차	.78	.88	.71	.51	.54	.49	.67	.69	.72	.62	.63	.72
왜도	.60	.53	.76	-.07	.02	.29	.14	-.04	.04	.27	.25	.50
첨도	.18	-.26	.38	-.13	.56	.34	-.56	-.46	-.55	-.08	-.02	.53

* $p < .05$, ** $p < .01$, *** $p < .001$.

주. 인정욕구1,2,3 = 문항묶음으로 생성한 인정욕구의 측정변인, 애착불안1,2,3 = 문항묶음으로 생성한 애착불안의 측정변인, 애착회피1,2,3 = 문항묶음으로 생성한 애착회피의 측정변인.

분석 결과, 전체 변인들의 점수 및 측정변인들은 왜도가 ± 2 , 첨도가 ± 7 을 넘지 않아서 정상분포 가정을 만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변인간 상관의 경우, 애착회피와 어머니 심리적 통제를 제외한 나머지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 측정모형 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으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측정변인들이 얼마나 잠재변인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잠재변인에 대한 각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와 CFI 모두 .95 이상, RMSEA는 .06 이하로 좋은 모형의 기준을 충족시켜 측정모형이 자료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48, N = 277) = 72.450, p < .001$; TLI = .984; CFI = .988; SRMR = .035; RMSEA = .043(90% 신뢰구간 = .020-.062). 또한 잠재변인들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639 ~ .9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i>B</i>	<i>S.E.</i>	β
어머니 심리적 통제	언어표현재제-감정무시	1.000		.821
	인신공격-변덕스러운 감정	1.260***	.073	.920
	애정철회-죄의식 심어주기	.925***	.058	.833
인정욕구	인정욕구1	1.000		.758
	인정욕구2	.891***	.094	.639
	인정욕구3	1.004***	.091	.791
애착불안	애착불안1	1.000		.889
	애착불안2	1.042***	.049	.889
	애착불안3	1.131***	.049	.932
애착회피	애착회피1	1.000		.927
	애착회피2	.931***	.052	.851
	애착회피3	.984***	.061	.785

*** $p < .001$.

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인정욕구를 거쳐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영향을 간접경로들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직접적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들이 포함된 부분매개모형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들이 제거되고 간접경로들로 설정된 비교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비교하여 실제 자료를 잘 설명하면서도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탐구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이 부분매개모형에 내재된(nested) 모형이므로 두 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통하여 어떤 모형이 경험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인지를 파악하였으며, 두 모형의 적합도와 χ^2 차이검증의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우선 모형적합도의 경우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모두 TLI와 CFI는 .95 이상, SRMR이 .08 이하, RMSEA는 .06 이하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해볼 때 비교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하였다, $\Delta\chi^2_{\text{완전매개모형} - \text{부분매개모형}}(2) = 4.737, n.s.$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더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비교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4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적합도 지수결과

	χ^2	df	TLI	CFI	SRMR	RMSEA(CI)
부분매개모형	72.450	48	.984	.988	.035	.043(.020-.062)
완전매개모형	77.187	50	.983	.987	.043	.044(.023-.063)
χ^2 차이검증	$\Delta\chi^2(2)=4.737, p>.05$					

* CI=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의 경로도를 그림 2에, 최종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의 경로도와 직접효과의 크기에 대한 검증 결과를 그림 3과 표 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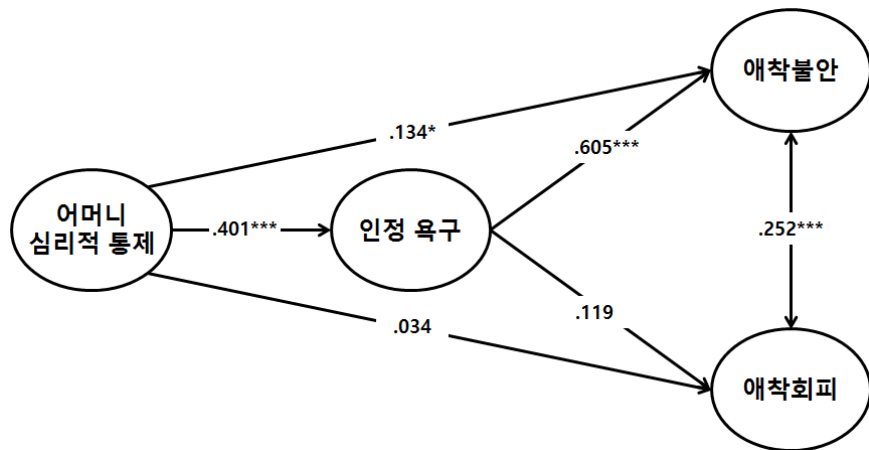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 $p < .05$, *** $p < .001$.

주. 측정변인과 오차항은 생략하였으며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그림상으로는 내생변인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간 공분산을 직접 연결한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잠재변인의 오차항들간 공분산을 연결하여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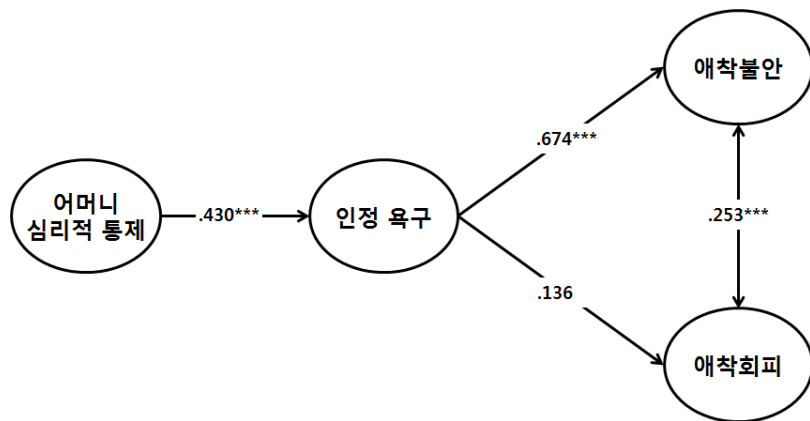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완전매개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 $p < .001$.

주. 측정변인과 오차항은 생략하였으며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그림상으로는 내생변인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간 공분산을 직접 연결한 것으로 표현하였지만, 실제로는 잠재변인의 오차항들간 공분산을 연결하여 분석하였음.

표 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i>B</i>	<i>S.E.</i>	β	<i>t</i>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인정욕구	.257	.043	.430	6.02***
인정욕구	→ 애착불안	1.043	.112	.674	9.31***
인정욕구	→ 애착회피	.205	.107	.136	1.92
애착불안	↔ 애착회피	.063	.019	.253	3.32***

*** $p < .001$.

4. 최종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분석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착불안의 관계에서 인정욕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고 난 후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를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해서 추정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이 제시되고, 그 구간에 0이 속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정상분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Shrout & Bolger, 2002).

분석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애착불안의 관계에서 인정욕구의 매개효과는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 .290$, 95% 신뢰구간 = .198 ~ .401. 즉,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자녀의 인정욕구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서 애착불안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표 6

인정욕구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strap)	
			하한	상한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인정욕구 → 애착불안	.290	.052	.198	.401

주) 부트스트랩 표집은 1,000번, 부트스트랩 추정치는 표준화된 자료임.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와의 관계에서 인정욕구가 매개하는지에 대해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학생들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설정된 모형의 적합도 및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의의 및 상담 장면에서의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에 이르는 경로에서 인정욕구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를 통해 자녀의 애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정욕구가 두 변인을 매개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애착불안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매개변인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경로 모형이 자료에 보다 적합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따뜻함과 반응성은 낮고 요구와 통제는 높아 자녀와 상호 존중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않게 되어 대학생들은 버려지는 것과 거절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어머니가 요구하는 대로 따르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어머니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자신의 감정을 제한하며, 자신이 기본적으로 사랑스럽지 않다는 부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갖게 되어 욕구를 과장하게 되며 어머니에 대한 인정과 승인의 심각한 욕구 등을 더 바라게 되어 정서적으로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Cassidy & Berlin, 1994)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학생들은 가능한 많은 반응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어머니와의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거나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는 쓸데없으며 정서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어 욕구를 최소화하여 부정하는 것의 비활성화 전략은 더 많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전략이지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불안정해진다(Teyber & McClure, 2013). 부모의 과잉통제, 무시 및 죄책감 야기와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와 애착수준이 자녀의 인정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민선, 2007; 이주희, 이춘재, 2003)는 연구대상에서 차이가 있지만 버려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어머니의 과도한 승인과 인정욕구에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학생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를 매개로 불안정한 애착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인정욕구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

다. 이는 대학생 자녀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인정욕구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이 지각할수록 인정욕구가 높았다는 선행연구들(김영란, 2014; 신희수, 안명희, 2013; 이서란, 2014)과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과잉보호나 과잉통제, 무시 및 수치심 유발과 같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애착수준이 대학생 자녀의 인정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김민선, 2007; 이주희, 이춘재, 2003).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통제와 간섭을 많이 경험한 대학생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전한 느낌이 부족하여 부정적인 자기상을 갖게 되고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인정욕구를 발달시키게 되는 경로를 통해 인정욕구가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정욕구가 애착불안에 미치는 영향도 정적으로 유의한 반면, 인정욕구가 애착회피로 가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인정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애착회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 애착 요인 중에 자신에게는 부정적이지만 타인에게는 긍정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는 성인의 몰두형과 승인욕구가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김광은, 2004; 배예슬, 2014)와 같은 의미다. 이는 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대학생들이 애착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버림받는 것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에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과잉활성화 전략(김진숙, 2013)을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성인애착과 관련해서 연구 및 상담 실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우선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들은 정서조절에서 각기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두 차원으로 나누어 대인관계문제(윤희경, 윤형식, 2013)나 대학생활적응(김광은, 2004; 박은희, 2014) 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불안정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서조절 및 대처 기제를 밝히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즉, 성인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자기 자신의 정서조절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애착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게 되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발달시키고(하진의, 2013),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 보이고 싶은 욕구를 지닌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힘든 상태와 애착대상에 주의를 집중하여, 강도 높고 집요하게 근접성과지지 추구를 시도하게 된다(김진숙, 2013). 반면 애착회피가 높은 사람들

은 자신의 힘든 상태에 대한 인정이나 표현을 억제하고 근접성과 지지추구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조직된다. 이렇게 애착회피가 높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모델을 갖고 있어 상담자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정서를 거부하는 행동이 적응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지승희, 2000). 이런 내담자들은 정서적으로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상담자를 믿을 수 없는 인물로 볼 수 있어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제한하고 욕구를 들어내지 않으며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의식하여 상담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상담자에게 맞추려는 경우에는 상담 장면에서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음에 대해 상담자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머니에게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대학생 내담자는 어머니의 인정을 받기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살피지 못했던(신희수, 안명희, 2013) 것처럼 상담자를 어머니와 동일시하여 똑같은 어려움을 대입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얼마만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거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탐색해야 한다. 내담자는 일상생활에서 해온 관계 패턴을 상담 장면에서도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파악될 때는 내담자를 상담과정 속에서 직면시킬 필요가 있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애착불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올 때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신뢰관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애착회피형 내담자는 자신의 힘든 상태에서도 애착욕구 및 감정의 인식 표현을 억제하면서 혼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상담자는 이러한 내담자의 애착관계가 지극히 적응적이며 자기보호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어머니와의 관계 및 확장된 사회적 관계에 주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지닌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김영란, 2014).

인간관계에서 분리와 상대방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침해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어머니의 통제적이고 독재적인 양육행동으로 애정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

에 자녀는 어머니의 인정을 얻기 위해 주도성과 긍정적인 자존감을 잃게 되어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이롭지 않게 한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간섭을 하거나 통제를 하면 자녀는 자신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병리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 수치심에 가까운 자기의식을 갖게 한다(하유미, 2012).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후속연구들의 과제들이 있다. 첫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서울, 경기도의 2개 지역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설문에 임하는 학생수가 적어서 표집대상이 1학년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 연령, 학년 및 심리적 특성이 다른 집단에서도 본 연구결과가 재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대학생의 성인애착, 인정욕구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가 자기보고식 방식으로 이루어져 연구대상자들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불성실하거나 방어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애착회피유형을 지닌 연구대상자들은 자기 개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인정욕구 척도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부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설문지의 사용이 갖는 제약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심리적 통제, 성인애착, 인정욕구를 평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제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빠른 경제성장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그 동안 자녀 양육에 소극적이었던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성역할 의식 및 내면화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자녀의 친구관계, 학업, 진로 등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형성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 성인애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애착불안에 많은 영향이 있는 관계로 이를 조절하는 조절변인에 관한 연구가 단계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다양한 영향에 관한 처리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책적으로 지금까지 부모교육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학교중심으로 운

영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에게도 부모교육을 통하여 대학생 어머니들의 대인관계 특히 자녀교육의 자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 중에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된 경우에는 자아의 강도나 힘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아의 흔들림이 심한 학생들에게 자아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가 상담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성인애착과 관련된 심리 내·외적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상담실제 장면에서 애착과 관련하여 관계개선에 노력하는 내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목적과 전략의 수립에 도움 되는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내담자와의 관계가 어머니와 자녀의 애착관계의 경험이 그대로 들어나기 쉽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담자는 내·외적 차원인 애착 경험으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고통을 겪는 내담자에게 그들의 애착 경험 자체에 대한 탐색이나 치유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외적차원의 인정욕구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불안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된 대학생들의 심리구조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연구하였으나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상존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이나 학업미진학 청소년들에게는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고 안전망을 이탈하여 두려움이나 불안 등 보다 어려운 심리적 구조가 내재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후속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이 된 대학생에게도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인정욕구와 같은 개인내·외적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계의 외적요소인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제, 인정욕구와 내·외적 요소인 성인애착 등을 함께 살펴본 것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남연, 양난미 (2012). 부모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309-2328.
- 김민선 (2007). **아동의 부모와의 애착수준과 정체체성 및 또래인정욕구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 이동귀 (2008). 대학생의 자존감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승인 욕구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3), 289-304.
- 김성현 (2004).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란 (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인정욕구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림 (201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윤, 이동귀 (2013).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4(1), 63-82.
- 김지형, 박경자 (2010). 아동의 또래 인정욕구가 우울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31(1), 83-99.
- 김진숙 (2013). 애착이론의 내적 작동 모델과 상담적 적용점. **상담학연구**, 14(4), 2485-2507.
- 마은애, 손은정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욕구 좌절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2035-2051.
- 박계란, 이지민 (2012). 남녀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9(2), 5-20.
- 박은희 (2014).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연 (2014). **청소년의 인정욕구 및 자기구실 만들기: 사회불안, 평가염려 및 하향 비교의 역할**.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방희정 (2009). 애착 연구를 통해 본 부모역할(parenting)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67-91.
- 배예슬 (2014). **청소년의 애착불안과 섭식태도: 타인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은주, 이지연, 이채희 (2012). 청소년용 타인에 의한 타당화 욕구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209-226.
- 신희수 (2012). **지각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대학생의 내면화 증상의 관계: 완벽주의,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와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 안명희 (2010).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모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5(4), 691-710.
- 안하얀, 서영석 (2010). 성인애착,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75-603.
- 윤희경, 윤형식 (2013).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게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사회과학논총**, 16, 75-100.
- 유고은, 방희정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03-122.
- 이서란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죄책감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경 (1995). **지각된 부모-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숙 (2010).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정욕구, 자기강화, 성공-실패 경험의 매개역할**.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희 (2005).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희, 이춘재 (2003).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심리사회적 적응.

사회과학연구, 19, 83-117.

이현덕, 홍혜영 (2011). 중학생의 애착과 인터넷 중독성향간의 관계: 외로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10), 217-294.

이현주, 안명희 (2012).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에 미치는 영향: 정신화 능력과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13-434.

장휘숙 (1997). 청소년의 애착과 MMPI 하위척도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323-341.

지승희 (2000).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과정 및 변화 요인 연구: 애착이론적 조망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최수경 (1997).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분리개별화**.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하진의 (2013). **성인애착 불안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반추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하유미 (2012).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양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m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Ainsworth, M. D. S. (1991). Attachment and other affectional bonds across the life cycle.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pp.35-51). New York: Routledge.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Barber, B. K., & Harmon, E. I. (2002). Violation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15-52).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aumrind, D. (1965). Parental control and parental love. *Children*, 12, 230-234.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 Bowlby, J. (1969). Disruption of affectional bonds and its effects on behavior. *Canada's Mental Health Supplement*, 59, 2.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US: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Cassidy, J., & Berlin, L. J. (1994). The insecure/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4), 971-991.
- Conger, K. J., Conger, R. D., & Scaramella, L. V. (1997). Parents, siblings,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113-138.
- Crowne, D. P., & Marlowe, D. (1964). *The approval motive: Studies in evaluative dependence*. New York: Wiley.
- Crowne, D. P. (1979). *The experimental study of personality*. Hillsdale, NJ: Erlbaum.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ri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Greenberg, J. R., & Mitchell, S. A. (1983).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ock, E., Eberly, M., Bartle-Haring, S., Ellwanger, P., & Widaman, K. F. (2001). Separation anxiety in parents of adolescents: Theoretical significance and scal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2(1), 284-298.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 P. H. Musse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1-101). New York: Wiley.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 Mallinckrodt, B. (2000).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0(3), 239-266.
- Olsen, S. F., Yang, C., Craig, H. H., Robinson, C. C., Peixia, W., Nelson, J., Jin, S., & Wo, J. (2002).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al outcomes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235-26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udolph, K. D., & Conley, C. S. (2005). The socioemotional costs and benefits of social-evaluative concerns: Do girls care too much?. *Journal of Personality*, 73(1), 115-137.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Teyber, E., & McClure, F. (2013). **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접근**(장미경, 김동민, 김인규, 유정이 장춘미 역.). 서울: 박영사.

- Waldinger, R. J., Seidman, E. L., Gerber, A. J., Liem, J. H., Allen, J. P., & Hauser, S. T. (2003). Attachment and core relationship themes: Wishes for autonomy and closeness in the narratives of security and insecurity attached adults. *Psychotherapy Research*, 13(1), 77-98.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56-75). CA: Sage.
- Whittal, M., & Dobson, K. S. (1991). An investigation of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and depression as a consequence of cognitive vulnerability to interpersonal evalua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23, 391-398.
- Wu, T., & Wei, M. (2008). Perfectionism and negative mood: The mediating roles of validation from others versus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 276-288.

ABSTRACT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dult attachment of students in universit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need for approval

Jeon, Hyekeyung*

This study aims at confirm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need for approval by exploring the effec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dult attachment of students in university. A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281 students in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was conducted for this study and the goodness of fit test, apply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 was adop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eed for approval fully intermediates with the issue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the adult attachment of students in university. This means that the need for approval becomes higher as the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level becomes more intense and tends to makes the students in university more anxious, but does so indirectly. This study verified the fact that need for approval should be considered as a significant factor when students in university are struggling with issues related to adult attachment and suggested the need for a follow-up study based on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Key Words: psychological control, adult attachment, need for approval

투고일: 2015. 6. 12, 심사일: 2015. 8. 4, 심사완료일: 2015. 8. 10

* Myongji University